

내 어깨에 달렸다



양현종, 어깨 통증 10여일만에 선발...등판 결과 따라 후반기 로테이션 영향



KIA 에이스 양현종이 전반기 유종의 미를 거둔다. 지난 5일 어깨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양현종이 15일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잠시 휴식을 취했던 양현종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뒤로하고 LG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 나선다.

예년보다는 늦은 페이스였지만 위기의 봄을 온몸으로 지켰던 에이스다. 초반 불안한 피칭을 이어가던 양현종은 5월6일 NC전 5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시작으로

점점 페이스를 올려갔다. 그리고 5월23일 삼성을 상대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는 등 5월 5경기에서 0.8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기지개를 폈다.

6월에도 양현종의 기세는 거침없었다. 6월4일부터 21일까지 5경기에 나와 0.63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쟁겼다.

그러나 6월 2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양의지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는 등 6.1이닝 8피안타(1피홈런) 2사구 2탈삼진 4실점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스티븐슨과 자리를 바꿔 출격한 7월 4일 kt 원정에서도 윤요섭·박경수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면서 1.1이닝만 소화한 채 마운드에서 물러나야 했다. 결국 이 경기 이후 어깨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이름이 빠졌다.

양현종은 한 차례 등판을 거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쉽지 않은 2015시즌이었다. 스티븐슨이 그나마 원투펀치로서 힘을 보탤지만 변동 많은 선발진에서의 부담이 컸다.

다시 마운드에 서는 지금도 부담은 많다. 양현종이 빠진 뒤 어렵게 버티던 KIA 마운드가 와르르 무너졌다. 원정 8경기에서 1승7패를 기록하는 등 전반기 종료로 앞두고 최대한 승을 쌓아야 하는 위기 상황이다. 매년 쉽지 않았던 등판, 이번에도 양현종의 어깨가 무겁다. 양현종의 등판 결과는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기태 감독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선발로 준비를 시작했다. 등판 후 상태를 보고 후반기 로테이션을 조절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돌아온 한기주의 어깨에도 관심이 쏠린

다. 한기주는 지난 12일 콜업을 받으면서 3년 만의 1군 등판을 기다리고 있다. 12일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몸도 풀지 못했던 한기주는 14일 처음 1군에서의 훈련을 소화했다. 불펜 피칭에도 나서면서 14일 대기 명단에서는 빠졌다. 벤치의 생각은 “급할수록 돌아간다”. 김기태 감독은 오랜 시간 재할을 해왔던 선수인 만큼 편한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랜 재할 경험이 있는 이대진 투수 코치도 조심스럽다. 이 코치는 “(한)기주를 보면 마음이 짝하니 좋지 않다. 마음은 그렇지만 성적을 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다. 옆에 두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시키고 던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빈타 김다원 “우규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덕아웃 특·톡

▲“7시에 자꾸 깨요.” = 아직은 올빼미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투수 김다원이다. 김다원은 지난 7일 1군에 등록됐다. 지난 5월에도 잠시 1군을 다녀갔지만 2군에서의 생활이 길었다. 2군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그만큼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일찍 하루 일과가 끝난다. 오후 6시30분 경기가 시작되는 1군과는 다른 생활. 김다원은 “아직 7시엔 운동을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자꾸 눈이 떠진다. 아직은 다른 생활 패턴

이 어색하다”고 말했다. 투수조 웨이트 훈련이 있어 일찍 출근을 했던 김다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딱히 할 일이 없다면서 김광수와 함께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우규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외야수 김다원의 마음이 급하다. 14일 경기 전까지 최근 10경기 타율은 0.160. 마음과 달리 몸이 따르지 않으면서 고민이 많다. 14일 훈련을 위해 경기장으로 나온 김다원의 눈에 조규제 전력 분석 코치가 들어왔다. 김다원이 간절한 목소리로 “우규

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조 코치의 분석을 열심히 들은 김다원은 “잘치고 싶다”며 방망이를 들었다.

▲“저 신인 때 감독님이 타석에 계셨죠.” = 세월이 무성한 김광수다. 그라운드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6년.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 LG와 처음 만나게 된 이적생 김광수는 “친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형들 빼고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웃었다. 2000년 LG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했던 김광수는 2011년 한화로 트레이드된 뒤 올 시즌 타이거즈팬으로 변신했다.

김광수는 “신인 때 (김기태) 감독님이 타석에 서시기도 했다”며 옛 생각에 빠졌다.

▲“애보는 게 가장 힘들어요.” = 쌍둥이 아빠 이호신의 육아 고민. 이호신은 지난달 23일 예쁜 딸과 아들을 동시에 얻었다. 쌍둥이 아빠가 되면서 기쁨이 두 배가 되고 고생도 두 배다. 이호신은 “집에 있을 때는 와이프 보고 눈 좀 볼이라고 하고 애들을 보는데, 하나가 울면 같이 울기도 하고 애 보는 게 정말 힘들다. 막상 와이프 자는 것 보면 깨우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얼굴 가득 아빠 미소를 지은 이호신. 아빠의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이호신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 더 절실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토드 프레이저, ML 올스타전 홈런왕

지난해 준우승자 토드 프레이저(신시내티 레즈)가 아쉬움을 딛고 홈런왕에 올랐다. 프레이저는 14일(한국시간) 홈 구장인 미국 오키호우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Derby 결승에서 작 피더슨을 15-14로 따돌리고 가장 많은 홈런을 쳤다.

지난해 홈런 Derby에서도 결승에 올랐다가 요에니스 세스페데스에게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던 프레이저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재수' 끝에 최고 성적을 냈다. 올해 홈런 Derby는 기존 아웃카운트를 세는 방식에서 4분 시간제한제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8명의 타자가 8강 토너먼트를 벌이는 점도 처음 도입됐다.

이번 홈런 Derby의 첫 대진에서 조시 도널드슨은 9-8로 앤서니 리조(시카고 컵스)를 꺾었다. 다음 조의 프린스 필더(텍사스)는 좌타자 친화적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13개를 몰아치며 올스타전 홈런 Derby 통산 81개의 타구를 담 밖으로 넘겨 이 부문 1위로 올라섰다. 그러자 프레이저는 정규시즌 안에 13개를 친 다음, 30초 추가 시간에 맞은 초구를 넘겨버려 필더를 1개 차로 제쳤다.

작 피더슨(LA 다저스)은 경쟁자 매니 마차도(볼티모어)가 12개를 치자, 2분 55

초 만에 13개를 터뜨려 가장 빨리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소문난 잔치'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와 엘버트 푸홀스(LA 에인절스)의 대결은 푸홀스의 승리로 끝났다.

준결승에서 프레이저는 도널드슨을 10-9로 따돌리고 2년 연속 홈런 Derby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홈런 Derby에서 나온 최장거리 홈런은 피더슨이 8강 1라운드에서 기록한 487피트(약 148m)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올림픽골프 대표 '여왕들의 전쟁'

한국 티켓 4장...박인비·전인지 등 20여명 예측불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1년여 앞둔 대한골프협회는 요즘 행복한 고민을 즐기고 있다. 금메달이 유력한 여자 골프에 출전할 대표 선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뛰어난 선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 경쟁이 뜨거울수록 경쟁력이 뛰어난 선수가 대표로 뽑히기에 선수들은 피가 말라도 대한골프협회는 신바람이 난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 대표 선수는 세계랭킹에 따라 정해진다. 세계랭킹 60위 이내에 든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다만 한 나라 선수는 세계랭킹 60위 안에 아무리 많은 선수가 있어도 4명만 출전하게 된다. 원래 한 나라에서 2명씩만 출전할 수 있지만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4명 이상 진입하면 4명까지 출전이 허용된다.

로가 10위를 달리고 있고, 올해 LPGA 투어에서 2차례 우승한 김세영(22·미래에셋)과 최나연(28·SK텔레콤)이 12, 15위에 올랐다. 4명 출전권을 보장받는 15위 이내에만 7명이다.

15위 밖에서 호시탐탐 10위권 이내 진입을 노리는 선수들도 만만치 않다. 16위 이미림(25·NH투자증권)이나 22위 장하나(22·비씨카드) 등은 투어 대회 우승이 가능한 선수로서 얼마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

4자리를 놓고 10여명 안팎이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림픽 대표 4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주일 전 상위 4명은 박인비, 김효주, 유소연, 김세영이었지만 US 여자오픈 결과에 따라 양희영이 6계단 뛰어 9위로 올라서고 김세영은 12위로 밀렸다.

특히 전인지의 급상승이 눈에 띈다. 전인지는 지난주에는 세계랭킹 20위에 그쳐 올림픽 선발 순위에서 한참 뒤졌지만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무려 10계단 뛰어 도약했다.

전인지의 가세에다 올림픽 대표 선발 마감에 1년여 남아 있어 태극마크의 주인공을 어떤 선수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랭킹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는 박인비는 몰라도 나머지 3명의 대표 선수는 예측 불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김호남, 임선영 대신 K리그 올스타전 출전

부상 중인 광주 FC의 '캡틴' 임선영을 대신해 '해결사' 김호남이 K리그 올스타전 무대에 오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17일 개최되는 K리그 별들의 잔치에 참가할 대체 및 추가 발탁 선수를 발표했다.

'팀 최강희'를 이끌 게 된 최강희 전북 감독은 근육 파열 부상을 입은 임선영의 대체 자원으로 김호남을 선택했다. 지난 16일 감독 추천 선수로 임선영이 올스타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됐다.

'팀 슈틸리케' 명단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 시즌 팬투표에서 11만 7761표를 받으며 전체 3위, 중앙 미드필더 부문 1위에 올랐던 이재성(전북)이 제주와의 경

기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이재성은 경기에서 내서는 대신 사회공헌활동 및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슈틸리케 대한민국의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재성의 공백을 채울 자원으로 부산 아이파크의 미드필더 주세종을 불렀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은 오는 17일 오후 7시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의 대결로 전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출발선에 설 때까지 '못 믿을' 볼트

“런던 다이아몬드리그 땀 것”...출전 반복 수차례

'번개' 우사인 볼트(29·자메이카)가 25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100m 경기 출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볼트가 출발선에 설 때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IAAF는 최근 공개한 런던 다이아몬드리그 경기 남자 100m 출전 명단에 볼트의 이름을 올려놨다.

볼트는 IAAF와 인터뷰에서 “런던은 내게 정말 특별한 곳”이라며 “영국팬들은 늘 대단했고, 자메이카 팬들도 런던 경기에 많이 찾아주시길 것이다. 팬들을 위해 좋은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기념하고자 열린다. 볼트는 런던올림픽에

서 남자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런던에서 기분 좋은 추억을 되살리고,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최고 스피린터의 명성을 되찾는 게 볼트가 그리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볼트의 몸 상태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다. 볼트는 6월 26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자메이카육상선수권대회를 하루 앞두고 출전 의사를 반복했고, 5일 프랑스 파리 다이아몬드리그, 10일 스위스 로잔 다이아몬드리그에도 나서지 않았다. 발 부상에 대한 우려 탓이었다.

/연합뉴스